

순창군 국가예산확보 청신호

신규 37개사업 1424억원 부처반영 긍정적

순창군의 국가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에 따르면 부처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규로 37개사업 1,424억원이 반영되는 등 예산확보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82억,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개선타입 167억,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0억,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66억, 소재지정비, 권역·마을개발사업 215억원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사업이 해당된다.

또 미래먹거리인 국립 노화연구원 설치사업 400억, 유기농 집단 재배단

지 조성 17억,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사업 16억원 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말부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으며, 각종 공모사업 대응 등 현재 87개사업 총 사업비 5,735억원의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처단계에서 미반영된 국도21호선(박재터널) 개량사업과 국지도 55호선(백산~월정) 정비사업 등 도로 기반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순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종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이 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인맥관리와 신속한 정책동향을 파악하는 등 예산확보 부서와의 적극적인 공조에 앞장서고 있는 점이 긍정적 효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명균 군수 권한대행은 "우리군의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성과는 66개 사업 1,550억원으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바 있다"면서 "올해도 지난해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수시 공모사업 응모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은 6월 기재부 예산심의와 9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를 통해 12월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민·관 사례관리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임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 민관협력 구축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석현)는 지난 5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민·관 사례관리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실군 협의체 사례관리분과(분과장 양병하)가 주축이 되어 임실군노인복지관, 전북동부아

동보건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행 등 민간기관 12개소와 군 보건 의료원 건강증진팀 등 5개소 공공기관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참석해 민·관 사례관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례관리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읍면 소재지 문화경제 중심지 탈바꿈

2021년까지 5개 읍·면에 333억원 투입 관촌 등 6개 읍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연계도

임실군이 전 지역 읍면 소재지를 경제와 문화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함께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임실군 전지역 읍면소재지를 주민들의 복합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임실군은 2021년까지 임실읍과 청음면, 강진면, 삼계면, 오수면 등 5개 읍·면소재지에 333억원을 투입,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실읍에는 해피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청소년 거리조성, 봉황로 지중화 및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사업 등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한 행정절

차 및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구고천 보행교와 청음건강마당을 준공한 청음면은 복지회관과 목욕탕 신축, 중심가로 및 보행로 정비를 추진 중이다.

강진면도 행복나루센터 조성 및 왕박골 이야기동네 정비, 마실센터 및 생태놀이터 조성, 맛갈시장 활성화사업, 옛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 속에 착착 이뤄지고 있다.

삼계면은 민속문화전수관 등 리모델링과 더불어 건강지킴센터 조성, 충효로 가로경관 정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등 기초생활거점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부터 70억원

을 투입해 복지회관 및 광장 조성, 주차장 조성, 원동산공원 정비, 가로경관 등을 정비했으며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나머지 6개면 소재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관촌면과 성수면에 각각 40억원 규모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을 이미 신청했으며, 나머지 4개면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이원섭 건설과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문화복지 등 기초생활 서비스 기능이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까지 함께 추진되면 임실군의 전 지역 읍면 소재지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광한루원 예촌길 일원 간판개선 사업 완료

남원시는 2016년부터 추진하였던 '광한루원 예촌길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8억원을 투입하여 1차사업인 광한루원 북문일원의 간판개선과 2차사업인 광한루원 서문일원의 간판개선을 통하여 남원시의 대표관광지인 광한루원의 품격을 높이고 시의 역

점사업인 명품 예촌과 어울리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거리로 개선하였다.

이번에 간판 개선사업은 추진위원회와 협조하여 주민설명회와 기존 개선사업과 연계성, 통일성이 있도록 특색있는 간판 디자인 개발과 실시 설계를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의 좋은 간

판사업 공모에 산내면 뱀사골 간판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노후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여 지리산의 특색을 살려 대표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거리경관 개선으로 주민들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종이팩→화장지로 교환

남원시는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통해 종이팩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시민들 자발적으로 자원순환을 실천하도록 돕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종이팩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 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포장재로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어, 신문·잡지 등 일반 폐지와 같이 혼합 배출 될 경우 재활용 공정 중에 이물질로 분류되어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종이팩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을 모아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준다. 단, 종이팩을 가져올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 건조시킨 후 가져와야 재활용이 용이하다.

지난 5일 남원시 참사당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우유팩을 가져와서 화장지를 교환해가서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 및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따듯함과 훈훈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이번 미담사례를 통해 남원시민들이 쓰레기 분비배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남원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제일고 여자 정구팀 '주니어 국가대표 2명 배출'

한중일종합경기대회 · 세계주니어정구선수권대회 출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한국주니어 정구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순창제일고 여자 정구팀 김연화, 조은정 선수가 개인복식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되었다.

또한 3위에 입상한 4명(순창제일고 2명)선수 중에서 1명을 강화위원회에서 선발하는 만큼 추가로 1명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연화, 조은정 선수는 올해 열린 제39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제23회 장원배 전국중고등학교 정구대회, 제96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의 3개 대회 개인복식 우승을 차지하였고 금번 최종 선발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여 여교부 최강 복식팀임을 대내외 널리 알렸다.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연화, 조은정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

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열리는 제18회 한중일종합경기대회, 제3회 세계주니어정구선수권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또한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여자 정구 실업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대표로 출전한 순창초, 중앙초 정구팀이 단체전 은메달과 순창중 정구팀이 단체전 동메달 획득 이후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순창지역 모든 정구팀이 올해 열린 전국대회에서 입상한바 있다.

순창군 체육관계자는 "10월에 순창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입상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겠다"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장애인 치매예방 관리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8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달간 관내 동 지역 중 장애인출현율이 가장 높은 노인동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건강왕은 나야!'를 매주 수·금요일에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남원시보건소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의 일환으로 장애인유형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에 이어, 올해는 노암동 거주 장애인의 높은 요구도에 따라, 지금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매예방 및 관리를 접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건강왕은 나야!'는 노령 및 독거장애인의 건강생활실천 지식도가 낮고, 치매 발병의 위험도가 높음에 따라 치매선별검사 및 우울, 기억감퇴 등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보고, 인지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치매예방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스트레칭 및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는 건강체조와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한 영양식단 교육, 중풍예방교육,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통해 재활촉진과 삶의 만족도를 도모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한방재활담당(☎ 620-7972)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관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